

광양제철소, 중증장애인 ‘행복이음 빨래방’ 개소

세탁 힘든 대형 세탁물 수거·세탁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포스코1%나눔재단’ 기탁금 활용한 일자리 창출형 사업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홀로 세탁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이음 빨래방’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장형곤 광양시 경제복지국장, 정현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과 광양제철소 ‘행복이음 세탁 재능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행복이음 빨래방’ 사업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광양시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세탁하기 힘든 대형 세탁물을 수거·

세탁부터 배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거나 배달을 위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할 때, 잠시 말뚝이 돼 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행복이음 세탁 재능봉사단’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4월 창당한 이들은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세탁 관련 전문교육과 장애인 이해 교육까지 이수한다.

앞서 ‘행복이음 빨래방’ 사업은 장애

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총 6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세탁·건조·포장 등 세탁 지원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광양제철소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다.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 기탁금을 활용해 총 4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중증장애인의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4월 광양시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문 제과제빵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했다. 지난해 10월은 ‘희망의 징검다리’ 3기 발대식을 갖고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 돌봄 놀이교실 운영

두루미마을학교와 함께 또래와 소통하며 즐기는 순천형 놀이교실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

나19로 긴급 보육이 축소되는 등 아동 돌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돌봄 놀이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두루미 마을 학교를 발족하여 놀이교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올해 아동돌봄 놀이교실은 전문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과 두루미 마을 학교 강사를 강사진으로 꾸려 지역 아

트 단지 내 또래들과 서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학습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졌다.

놀이교실은 초등학생 1~3학년 10~12명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실에서 운영되며, 책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입체놀이, 전래놀이, 공예체험, 비누만들기, 3D펜 체험, 체험탐방, 옥상텃밭 운영 등 우리 마을 지역의 역사와 고유한 놀이 문화에 접목해 순천형 놀이학습과정으로 구성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선정

나주시가 출산 및 영유아 가정의 건강한 새 출발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가정에는 8주 이내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산모 건강상태 확인과 수유·육아 환경교육, 신생아의 건강발달평가 등 전문상담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심각한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정에는 출산 전부터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25회 이상의 전문가 방문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돕는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 이수 인력들이 배치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재취약가구 간이 소화기 보급

총 50세대에 스프레이식 휴대용 간이 소화기 보급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협의체는 최근 화재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화재예방을 위해 흠뻑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총 50세대에 스프레이식 휴대용 간이 소화기를 보급했다.

화재 시 초기 5분 골든타임에 초동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50% 이상의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화기는 무겁고 사용법도 어려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손쉽게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골든타임’ 소화기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복지 이장과 연계하여 화재취약계층을 사전에 조사한 후, 봉사단체인 강진다솜회 회원 20여 명이 화재 예방요령을 설명하면서 스프레이식 휴대용 간이 소화기를 주방 등 집안에 설치작업을 실시했다.



소화기를 전달받은 한 주민은 “변변한 소화기도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와서 손수 설치해 주고 소화기 사용방법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며, “소화기가 가볍고 모기약을 뿌리듯이 사용하면 되니 참 편리한 것 같다.”라며 만족을 표했다.

김영일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신속 대응하면 소방차 1대 출동과 같은 화재 진압 효과가 있다.”며,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강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